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

박희석 연구위원 · hspark@sdi.re.kr

한진아 연구원 · cycle13@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서울경제분석팀

- 서울 문래 철공소의 변화
- 해외 산업시설 활용 사례
- 서울 문래동 창작촌
- 산업시설 활용과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및 서울의 역할

서울 문래 철공소의 변화

한 도시의 발달과 경제구조는 시대별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변화되었다. 농경사회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했으며 산업사회는 질과 양, 정보화 사회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후 창조 사회는 감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며 인간의 창의로 만들어지는 문화가 부각되었다. '창의'와 '문화'가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조업 중심 사회에서 감성 중심의 서비스 사회로 변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창조사회의 발전방식은 산업사회와 달리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도시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때 도시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산업시설들은 지가 상승 등으로 도시 내에 입지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줄었고 이윤 창출을 위한 재활성화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유휴 산업시설로 방치된 채 남겨지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성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준공업 지역의 공장지대를 주거지역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성화 의견들은 사회적 의미나 가치 보다 도시환경 개선과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방식이었다. 이런 재활성화 흐름 속에 문래동 철재상에는 홍대 및 대학로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해당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문래동 철재상가로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예술촌을 형성하였다. 현재는 약 160여명의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의 교류의 장을 넓혀가고 있어 획일화된 재활성화 사업 속에 또 다른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 재활성화 방안들은 여전히 경제 활성화 또는 도시 환경 변화에 집중되어 있어 문래동 사례와 같이 기존 산업시설을 보존하며 자생적으로 변화가 진행되기에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구조 변화를 한발 앞서 경험한 영국, 미국 등의 산업시설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문래 창작촌의 유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며 공공 및 지역민들의 역할을 무엇인지 고민해보려 한다.

해외 산업시설 활용 사례

1. 해외사례

1) 중국 상해: 모간산루(莫干山路)디자인예술단지 'M50'

상해 경제 중심이 공업이던 시절 육로와 수로 이용이 쉬운 탓에 저우씨 일가의 가업인 방직 공장의 터였다가 해방 후 국영기업으로 운영되던 곳이라고 한다. 이후 신화 면방직공장, 상하이 제2모방직공장, 상하이 춘밍 공장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 발전으로 서서히 버려진 공장지대가 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대만출신의 설계사 덩쿤옌을 시작으로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2004년 상하이시 경제위원회에서는 '춘밍 예술산업지구'로 지정하였고 2005년에는 '상하이 창의산업단지'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모간산루 50번지에서 유래한 'M50(创意园)'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지금은 상하이시 정부가 지정한 11개 특색 문화거리로 지정되었으며 상해시와 100여개의 민간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금의 M50를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중국 내에서는 최고의 화랑으로 꼽히는 스위스 화가 Lorenz 갤러리와 이탈리아 Davide Quadrio의 화랑이 들어와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 예술인들과 중국 예술인 약 130여명이 입주하여 회화, 공예, 디자인, 영화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¹⁾



자료: <http://swingingshanghai.com/40052448378>

[그림 1] 'M50(创意园)'의 전경

1) 중국 상해의 변화를 이끈 'M50예술촌', 데일리안(2008.08.18)

'M50'의 특이한 점은 과거 방직회사의 사무국이 임대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인데 국가와 민간이 동시에 들어와 관리하는 파산쁘나 지우창 예술촌과 달리 기존 방직회사가 예술촌을 임대하고 예술가도 키워내며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때문에 이곳의 운영원칙도 시 정부의 의견은 배제되고 방직공장 사무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민들과 예술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²⁾. 상하이시 역시 M50 예술촌 인근의 공공디자인을 위해 '3불정책'을 단행하였는데 (1. 토지종목 변경 불허, 2. 건축구조물을 함부로 바꿀 수 없음, 3. M50 주변부 문화창조사업을 명목으로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꿀 수 없음)³⁾ 이는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도심재생에 몰두하였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비록 현재는 처음보다 임대료가 올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예술인들이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산쁘보다 'M50'가 덜 상업적인 이유는 초기 작가들이 원래의 공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예술촌으로 바꾼데 대한 자부심과 애착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료: <http://blog.naver.com/dodo4014?Redirect=Log&logNo=80071984757>

[그림 2] 'M5(创意园)' 전경

2) 중국 상해의 변화를 이끈 'M5예술촌', 데일리안(2008.08.18)

3) '도심 재생' 주민에 정책 주도 역할 맡겨라, 매일신문(2009.02.12)

2)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Tate Modern) 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1963년 건설된 뱅크사이드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로 1981년까지 가동되었으나 석유값 상승으로 발전 기능이 중지되고 건물의 일부만이 런던전기회사의 변전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수장품의 증가로 확장의 필요성을 느낀 테이트미술관이 새로운 부지를 탐색하던 중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대상지로 확정하고 2000년 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뱅크사이드 지역은 한동안 런던의 낙후된 지역으로 경제, 문화 활동의 외곽지였다. 발전소의 건물을 미술관으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물 리노베이션, 주변 환경 정비, 도시환경 개선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기에 주변지역의 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사현장에 임시 사무실과 방문자 센터를 개설하여 미술관 홍보 뿐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주민, 예술가, 학교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술관 건립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미술관은 뱅크사이드 예술교육 위원회(Bankside Arts Training Trust)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미술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⁴⁾



자료: <http://siemphre.blog.me/30100649804>

[그림 3] 테이트모던 미술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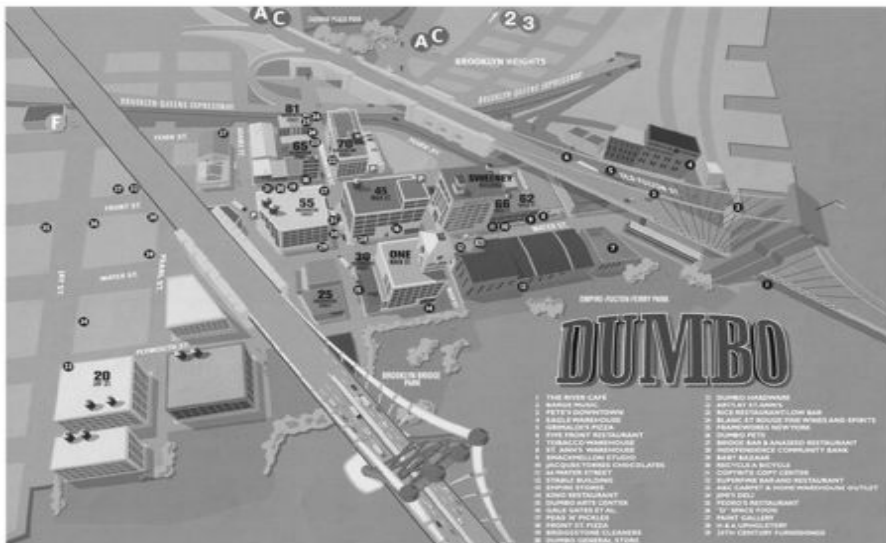
4) 신동철(2010),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공공영역 구축방식에 관한 연구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테이트모던 미술관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도심의 산업시설을 재생하는 일이 단지 건물 용도의 전환만이 아니라 낙후된 주변지역의 재생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모든 재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역의 거주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여러 이벤트를 진행한 테이트미술과의 노력은 도시와 건물의 재생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미국 뉴욕: DUMBO(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

DUMBO(덤보)는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2개의 다리인 맨하탄 브릿지(Manhattan Bridge)와 브루클린 브릿지(Brooklyn Bridge) 사이 일대를 가리키는 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의 줄임말이다.

초기 벨기에인들의 정착지였던 이 지역은 1890년대부터 뉴욕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Fulton Ferry Landing을 중심으로 대형 창고와 공장지대가 형성되었는데 1970년대 경제적으로 맨하탄의 높은 지가를 감당할 수 없는 예술가들이 브루클린으로 넘어오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오래된 뉴욕 시가지의 창고들이 즐비한 공장지대에 이스트 강을 따라 디자인 스튜디오가 한 둘씩 들어서면서 소호, 첼시 등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비싼 임대료를 피해 이 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한다.



자료: <http://dumbonyc.com>

[그림 4] DUMBO 지도

이후, 산업시설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1978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역민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재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업적인 지역 명인 DUMBO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또한 DUMBO의 특성 유지를 위해 매년 9월에 DUMBO Art Festival 을 개최하여 작업공간을 공개하여 지역민들에게는 문화 교류를, 예술인들에게는 작품을 전시할 기회와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여 끊임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DUMBO만의 문화를 쌓아가고 있다.



[그림 5] 지역민과 함께하는 DUMBO 아트페스티벌

서울의 문래 창작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전환한 런던의 테이트 모던, 중국의 M50 등 해외 성공 사례가 생겨나면서 서울도 유휴 산업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창의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서울시 전략에 따라 예술가와 시민의 창조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는 8개 지역에 기능을 다한 11개의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서울의 문화·환경·교육·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 중 문래동 예술 창작촌은 해외사례에 비추어 그 규모나 연혁 등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유휴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예술, 문화 마을의 서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6]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주관 하에 도시산업 구조의 변화로 용도를 잃게 된 공장, 지하상가의 빈 점포, 빈 청사 등 도심 내 유휴공간을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교류의 공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되살려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래 창작촌을 꼽을 수 있다. 문래동은 1930년대 유명 방직공장들이 대거 자리하던 곳으로 ‘물레(紡車)’라는 방직기계의 발음을 살려 ‘물래동’ 이라고 했으며 이후 새로운 문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문래동(文來洞)’ 으로 바꾸었다. 문래동은 1960년대에는 방직공장에 이어 철제 관련 업종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부터 대규모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철공소가 및 자동차 정비단지만 남게 되어 현재까지 대표적인 도심 속 철공소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점차 쇠락하였다.

2003년 부터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시설과 싼 집세로 인해 홍대 및 대학로의 예술가들이 찾아와 빈 공간에 작업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창작촌을 이루었고 현재 문래동 3가를 중심으로 약 4만 1231㎡(1만 2472평)에 걸쳐 ‘문래 창작촌’ 이 형성되어 있다.



[그림 7] 문래 창작촌 거리 풍경

2010년 1월 현재 문래 창작촌에는 작업공간 110여 곳에 160여 명의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르로는 회화·설치·조각·디자인·일러스트·서예·사진·서예·영상·영화·패션·애니메이션 등의 각종 시각예술 분야와 춤·마임·거리극·전통음악·국 등의 공연예술 분야 및 비평·문화기획·시나리오·자연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및 문화 활동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문화국에서는 ‘문래 창작촌’ 지원을 위한 예술공장을 건립하며 문래 창작촌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

으며, 영등포구청에서는 예술가들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지만 개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등
향후 문래동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⁵⁾



[그림 8] 문래 창작촌의 간판



자료: 「서울시 문화특화 및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서울시, 미발간책자. (재인용)

[그림 9] 문래 창작촌

5) 라도삼(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시설 활용과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및 서울의 역할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공단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기업이 철수한 공장을 아용하여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일들은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된 다양한 해외사례 중 본 생생리포트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는 유허 산업시설 활용을 중심으로 열악한 주변 상권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재개발만이 유허 산업지 활용 방안의 최선택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민들과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적인 압박과 상업화의 위협 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허 산업시설 활용은 기존의 도시가 가진 이미지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도시의 역사적 장소이자 산업생산의 체험과 학습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어 그 활용영역 또한 넓다. 이처럼 산업시설의 활용은 건설과 철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자산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이다.

물론 서울 문래 창작촌이 해외 사례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지로의 영역을 넓히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 할 수 있을 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향후 이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시설 활용에 관한 지역민들의 인식 변화와 주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산업시설의 보호와 꾸준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무엇보다 서울 근대의 기억을 간직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의 역사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문래 창작촌 같은 유허 산업공간들이 서울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장소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일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2006),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도시정보」
- 김상태(2009),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라도삼(2007),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라도삼(2007),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라도삼(2010), 「창의문화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적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 신동철(2010),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공공영역 구축방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성희(2009), 「인천지역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활용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매일신문(2009), 도심 재생 주민에 정책 주도 역할 맡겨라
- DUMBO사이트: <http://dumbonyc.com>
- M 50 사이트: <http://www.m50.com.cn/en/>